

■ 광주시-시의회, 총인 저감시설 의혹 공방

광주시 “해촉 심의위원들은 자진 사퇴한 것” 시의회 “유지관리비 많은 대립 선정 이유는”

홍인화 의원 “시 간부에게 협박당했다” 울먹

광주시의 하수처리장 총인 저감시설 입찰을 둘러싼 논란이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시의원들은 총인 처리시설 입찰절차와 업체선정, 심의위원 해촉 등에 대해 의혹을 따져 물었고, 시는 적법한 평가에 의해 대립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심의위원들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촉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심의위원 해촉과 관련한 광주시 간부의 ‘막말 논란’을 놓고 반발해 온 홍인화 의원이 의정활동 중단까지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영표(민·남구 1) 의원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유지관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대립산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업체에 점수를 준 평가위원

은 타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영한 건설방재국장은 “유지관리비 항목은 전체 7개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총점에서 대립산업이 앞섰다”며 “항목별 특색을 감안해 배점을 높이고 해당 항목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도 늘리겠다”고 답했다.

신광조 환경생태국장은 “시가 특정공법을 제시하면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업체가 제시하려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공법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종합건설본부장은 “일부는 전담공법과 후담공법을 병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171곳이 후담공법을 채택하고 있고, 이 중 19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립산업 컨소시엄이

연간 유지관리비로 예초 91억원을 제시했지만, 61억7000만원으로 절감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추가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테스트 포스트를 구성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인화(민·북구 4)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전체 심의위원(공무원) 26명 중 7명이 전격적으로 해촉된 것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부당 해촉”이라고 주장한 뒤 “부당 해촉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청 모 간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공개하고,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가 강구되지 않으면 의정활동 전면 중단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있어서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홍 의원이 억울한 이야기를 하기에 (관련 정보) 공무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홍 의원이 주장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잠시 울먹이면서 “해당 간부는 이후 ‘30분 동안 홍 의원을 혼내겠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역주민과 공무원들로부터 듣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시의회 내에 이반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해당 간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의정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있어서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홍 의원이 억울한 이야기를 하기에 (관련 정보) 공무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홍 의원이 주장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盧 대통령처럼 광주가 선택한 후보 되겠다”

김정길 출판기념회... 정계 인사 대거 참석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12일 오후 광주에서 자서전 ‘김정길의 희망’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내년 대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박주선 최고위원, 강운태 광주시장, 조영택·강기정·김재균 의원, 이부영·정동채·장성민·김성호·전갑길·양형일·송석찬 전 의원, 김정길 전 장관의 지지모임인 ‘길벗’ 중앙회장인 엄대우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서울과 저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이 아닌, 민주당의

성지이고, 민주당의 수도인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듯이 광주에서 지지 받는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광주가 선택한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표의 확장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아래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숨겨진 후보를 찾아야 하며, 대선 후보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

선에 참여했던 손학규 대표와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을 지키면서 부산에서 지역주의 벽에 맞서 싸운 일관된 정치인인 김정길과 차별성을 국민이 선택해달라”며 민주당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44.6%의 높은 득표율을 올려 민주당의 불모지 부산에서 지역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민주당이 부산에서 5~6석, 경남에서 3~4석 이상 확보하고, PK출신이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영남 후보론”을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15기념행사 개성서 공동 개최 추진

반환美工지 85곳 10월 환경조사

6·15남측위 98명 방북신청 정부 “5·24조치 근거 검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오는 15일 개성에서 ‘6·15공동선언 11월 기념 평화 통일만족대회’를 열겠다고 대표단 98명의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6·15남측위는 남북공동행사에 참가를 위해 지난 4일 백낙청 명예대표와 김상근 상임대표 등 85명의 방북을 신청한 데 이어 9일 13명의 신청서를 추가 제출했다.

방북단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회에는 남·북·해외인사 260명이 모여 토론회와 부분별 상봉, 예술

공연, 개성지구 역사유적 참관 등을 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근거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 대북지원 등 꼭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외 우리 국민의 방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방북 목적과 신청 절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공동행사가 가진 남북화해의 정신을 살려 정부의 승인을 기대한다”며 “정부가 불허하더라도 일단 개성으로 출발하고 막히는 지점에서 준비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6·15남측위는 공동행사 개최 논의를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불허했다.

연립뉴스

1990년부터 2003년 5월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85개소에 대한 환경조사가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국방부 이용걸 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시설배치 등 기초자료를 6월까지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환경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환경조사 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환경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주민과의 대화

유태명 동구청장

유태명 동구청장이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개 동을 돌며 ‘2011 구청장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유 청장은 ‘주민 불편사항 청취와

2003년 5월 이전 반환된 기지는 85개소로 여의도 면적 10배에 이르는 957만여평이다. 국방부는 이들 기지의 시설배치도 90%를 확보했다.

특히 2003년 5월 이전에 반환된 기지는 환경조사를 하지 않은 채 넘겨받았으며 이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부천시의 캠프 머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기초조사와 굴토 및 시료분석, 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이강래 “97년 대선 YS 중립 덕에 정권교체”

최경환 “진실왜곡... DJ·국민 모욕한 일” 반박

DJ의 총재 시절 특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최근 저서 ‘12월19일’에서 97년 대선전의 최대 고비로 ‘DJ 비자금 의혹 사건’을 꼽고 YS의 선거 중립이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다고 회고하자 김대중평화센터의 최경환 공보실장이 11일과 12일 연이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 실장은 12일 논평에서 “이 의원이 97년 정권교체를 YS의 선거 중립 덕이라고 말한 것은 거듭 유

감스러운 일”이라며 “비자금 의혹은 (DJ 집권 이후인) 98년 수사 결과 완전한 조작인 것으로 증명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은 2009년 당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DJ와 사적 관계는 정리됐다’고 말했다가 책에서는 ‘DJ는 경한 공보실장이 11일과 12일 연이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은 이날 의원 실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책은

수많은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의원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바를 역사 앞에 증명하는 자세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 의원이 당시 YS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보고 느낀 대로 진솔하게 기술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또 “최 실장이 ‘비자금 사건’의 이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책을 읽고 논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무슨 근거로 ‘진실왜곡’, ‘역사 왜곡’을 운운하는가”라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설전을 놓고 박지현 전 원내대표와 이 의원의 ‘구원’이 반영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현기자 jkpark@kwangju.co.kr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정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S/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능길라강판지붕개량 061)335-8842, 010-4024-4005

2011년도 **해양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여성가족부인정)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1년 7월 4일(월) ~ 8월 5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 접수기간 : 2011. 6. 24(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충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